

“품질개선 요구되는 미산 옥수수”

사료협회 기획조사부 김치영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미산 옥수수의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 태국 등에서 수입된 옥수수들과 비교해 볼 때 미산 옥수수의 품질저하 현상은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다. 이미 중공산 옥수수에 대해서는 품질경쟁력을 상실한지 오래이고, 과거 저질 옥수수의 대명사처럼 불리던 태국산 옥수수한테마저 자칫 불명예스런 자리를 물려받아야할 처지에 와있다.

이같은 품질저하현상과 관련하여 국내 사료업계 일각에서는 기존의 US No.3 Yellow Corn 구매대신, 한단계 높여 US No.2 Yellow Corn 구매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현재의 최저 입찰구매제도가 가져다 주는 불가피한 결과인만큼 근본적인 구매방법의 개선이 따라주어야 한다는 자성도 일고 있다.

아무튼 이와 같은 미산 옥수수의 품질저하 현상은 일반 수요자의 육안으로조차 확인될 만큼 심각해지면서 그동안 중공, 태국, 아르헨티나산 옥수수의 가격경쟁에 뒤져 고전하다가 겨우 가격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으로선 적신호가 아닐 수 없다. 더우기 최근 수입되는 미산 구곡옥수수는 미연방정부의 농업정책에 의해 장기보관된 물량이고 보니 현재 재고누증으로 고민하는 미국 입장으로서도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다. 이와같은 현상에 대해 아직은 가격이 낮고 CCC(Commodity Credit Corporation; 미상품 신용공사)가 보유하는 구곡방출로 인

한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관용(?)을 보이고는 있지만 앞으로 이같은 문제가 계속 누적될 때 그동안 미산 옥수수가 쌓아온 신뢰도에 급이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동안 태국산 옥수수에 대해서만 꾸준히 품질개선 요구를 해온 우리의 입장으로선 이제 미산 옥수수에 대해서도 시급한 대책이요망되고 있다. 아무래도 향후 2~3년간은 특별한 변화가 없는한 미산 구곡옥수수에 의해 국제사료곡물시장이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미산 옥수수의 품질저하 문제에 대해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인식하여 지난 1982년 3월 일본사료공업협회, 전국 농업협동조합, 전국 낙농연합회가 연명으로 미국대사관을 통해 미농무성에 미산 옥수수의 품질저하에 대한 개선요구를 한 바 있었고, 그외에도 여러차례 곡물검사를 통해 수분, 손상된 곡립 및 잡이물질 등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첨부하여 미농무성과 관계기관에 크레임을 제기하였다.

한편 실수요자 단체인 일본 사료공업협회 독자적으로도 분석데이터를 첨부하여 품질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즉 1983년 9월에 일본 사료공업협회 이사장과 실수요자 대표들이 워싱턴을 방문하여 Dockage그룹 멤버들을 만나 실정을 알리고 협력을 구하는 등 품질개선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그러나 미국측의 반응은 냉담하여 그동안 이렇다할만한 진전을 보지 못한채 다음과 같은 공식, 비공식 해명에만 급급해 왔다.

- (1) 분석방법의 차이
- (2) 샘플채취시간과 장소의 차이
- (3) 수송기간중의 변화
- (4) 수확기의 일기불순

결들여 No.3의 품질이 악화되면 No.2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위에서 열거한 미국측의 주장중 (1)에 대해서는 일본과 미국 FGIS 연방곡물검사국 사이에 지난 84년 6월부터 85년 3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이루어진「썬플교환에 의한 미·일본식 결과의 비교」에 의해 거의 오차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미국측의 주장은 일축되고 말았다. 또한 (2)와 (3)에 대해서도 (1)과 관련하여 미국측의 논리가 극히 희박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결국 미산 옥수수의 품질저하에 대한 비난의 소리는 미국의 생산단체에게 까지 들어가 일리노이주의 옥수수생산자협회(Corn Growers Association)가 자금을 부담하여 일리노이대학의 Hill교수에게 의뢰하여 미국의 옥수수 선적지와 양육지간의 품질변화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고, 일본 사료곡물수출입협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기에 이르렀다.

1984년 5월 Hill교수는 예비조사를 위해 일본을 방문하여 요코하마, 나고야, 지바등 여러항구를 둘러보고 각 사이로 시설을 시찰한 뒤 동경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옥수수의 유통 및 품질문제에 대한 강연까지 하였다.

그후 Hill교수는 귀국후 신곡(New Crop)에 대한 조사실시를 위한 모선선정작업에 들어가 1985년 4월 미쓰이물산(三井物産)의 협력하에 뉴올리안즈항에서 제1선 Century Progress 호의 썬플링에 들어갔다. 이 모선은 5월28일 지바항 일본 사이로에 접안되어 양육지에서 다시 썬플링이 이루어져 무사히 작업이 종료되었다.

제1차조사 결과는 미·일간의 옥수수 품질의 변화(Changes in Quality of Corn Between U.S. and Japan)라는 제목의 레포트로 되어 있

으며, 이 레포트는 다시 일본에서 번역되어 여러기관에 배포되었고 그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수분 : FGIS 증명서수치(14.9%)와 선적지, 양육지간의 약간의 차(0.1%)가 있었지만 통계적 유의차였다. 그러나 높은 수분함량으로 인해 열과 나방피해가 발생하였고, Blending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더 연구가 요구된다.

(2) 파립·이물 : FGIS 증명서는 3.4%로 되어 있지만 선적지와 양육지에서 하역작업중 증가하였다. 항해중에는 커다란 변화는 발견 할 수 없었다.

이상과 같은 제1차 조사로는 자료가 부족하고, 조사가 충분히 행해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Hill교수는 제2차 조사를 요청하였고 일본측에서도 적극 협조하게 되었다.

제2모선은 현재 일본의 미산 옥수수 수입량이 대부분 서해안(PNW)지역이기 때문에 서해안으로 선정하였고 이때문에 모선선정이 다소 지연되기는 했지만 금년 3월하순 전농그레인의 협력을 얻어 Convent에서 Sampling을 행하였다. 이 때는 다시 4월 22일 가고시마항에 입항하여 전농사이로에 접안되었고, 전농, 전농싸이로, 조합무역의 곡물검사팀의 협력하에 양육지 Sampling을 끝마쳤다.

이같은 2 차에 걸친 조사결과는 현재 Hill 교수팀에 의해 최종적인 레포트로 정리되고 있는 단계이며, 점차 미국측의 인식을 바로 잡아주고 있다. 즉 지난해 10월 재일미국대사관으로부터 미농무성 해외농업국 AAS에 송부된 레포트요약이 금년 3월 미국의 농업지 Farm Journal에 다음과 같이 게재되었다.

「최근 동경의 미대사관 농무관으로부터 송부된 보고에 따르면 미산 옥수수의 품질저하와 이에 대한 미측의 개선노력 부족으로 인해 우리의 가장 큰 고객인 일본이 다른 지역으로 수입선을 전환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 레

포트는 일본인들 사이에 옥수수, 대두, 소맥의 품질저하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망부석과 같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미농무성도 미산 옥수수에 대한 실정을 바로 인식하기에 이르렀지만 수출량의 대폭 저하로 미 곡물 엘레베이터의 채산악화와 다수확, 병충해, 한발에 강한 하이브리드의 이용증가 등으로 발본적인 개선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없는 형편이다.

2 회에 걸친 Hill교수팀의 조사가 원래 「미국과 일본에 있어서의 옥수수 품질의 변화」 그 자체에 커다란 의의를 두었지만,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움직임을 미국측에 널리 알리는 효과를 얻어냄으로서 그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기간동안 그들은 다른 나라에서 선적돼온 샘플을 보고 미산 옥수수가 가장 열세에 놓여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미산 곡물품질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금년 1 월부터 5 월에 걸쳐 30여 정부관계기관, 각 업종단체, 대학등의 대표가 모여 미국곡물 품질개선을 위한 작업을 수행하고 여기에 채택된 제언을 미사료곡물협회를 통해 미대사관에 전달하였다.

이 제언은 현행 규격개정의 구체적 제안이 6 건, 금후 연구를 요하는 과제로서의 권고형태가 13건등 총 19건으로 대상곡물은 소맥, 대두, 옥수수, 수수 등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제안된 몇가지를 소개하면 우선 수수 등급 변경으로 현재 황색수수 가운데 혼입이 인정되는 갈색옥수수 비율을 10%에서 3% 이하로 낮출 것과 파립·이물을 따로 구분하여 예컨대 US No.2의 경우 과거 파립·이물 8%였던 것을 파립은 4%, 이물은 2% 등으로 구분하여 변경해 줄 것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샘플채취등과 관련하여 FGIS 또는 그 지정을 받은 자는 검사되고 있는 수송수단 전체를 대표하는 샘플을 수거하여 올바른 검사가 이루어졌을 때만

공식적인 백색증명서를 발부하고, 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곡물에 대해서는 다른 색깔의 증명서를 발행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옥수수나 수수등의 파립·이물등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한 연구조사를 통해 이를 분리시 발생하는 비용등 경제성등에 대해 검토해 줄 것등을 제안하였다.

이와같이 일본내에서 미산 곡물의 품질저하와 관련하여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그동안 중공산, 태국산, 아르헨티나산 구매에만 치중해온 탓으로 문제는 인식되어 왔음에는 구체적인 대책에는 소홀해 왔다.

과거 태국산 옥수수의 아플라톡신발생 문제로 인해 태국산 옥수수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품질문제가 제기되었고, 종전의 입찰조건을 강화하여 아플라톡신 함유량을 50ppb에서 30ppb로 변경한 바 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태국산 옥수수의 품질개선을 요구해온 결과 최근에는 눈에 띄게 품질이 개선되었다. 기후적인 여건으로 인해 다소 간의 품질저하는 어쩔 수 없으나 산지에서 수집 및 집하과정에서 발생하던 잡이물 혼입과 수분과다 등은 태국정부의 꾸준한 노력에 힘입어 날로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젠 미산 옥수수가 국제사료 곡물시장의 헤게모니를 잡은 이상 값싸고, 양질의 미산 옥수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최저 국제경쟁입찰을 해 놓고 가장 값싼 미산 옥수수를 유찰시키기가 쉽지 않은 우리의 구매요건을 감안할 때 품질에 대한 가격기준을 정립하던가 또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미간 옥수수 품질의 변화를 조사·연구하는 등 미산 곡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미국입장에서도 자칫 힘들게 확보한 가격경쟁력을 쉽게 상실할 우려가 있고, 우리업계 입장에서라도 “싼게 비지떡”이라는 원료구매풍조가 만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